

중국 공유경제(分享经济) 현황 분석

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중국경제팀 선임연구원

주요내용

- (현황) 최근 중국의 공유경제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2020년에는 GDP 대비 10%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- (원인과 분석) 금융 분야의 공유경제 거래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, 지식 콘텐츠 분야의 성장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남. 신규창업은 2015~2015년 2년간 대거 나타났으며, 교육, 의료, 공간대여 등 분야의 신규창업이 많음. 공유경제 기업들의 자금조달 규모가 최근 2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, 교통 분야 기업의 자금조달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.
- (전망과 시사점) 공유경제 시대에 대비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개선, 신규창업기업 지원 등 국내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통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꾀해야 함.

1. 이슈 현황

■ 최근 중국의 공유경제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2020년에는 GDP 대비 10%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
- 지난해 중국의 공유경제 시장거래규모는 전년대비 103% 증가하였고, 참여인구도 약 6억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.
- 2016년 현재, 중국의 공유경제 시장거래규모는 3조 4,520억 위안으로, 2020년에는 GDP 대비 10%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- 공유경제 종사기업들의 자금조달 규모도 2015년 대비 130% 증가한 1,710억 위안에 이르고 있으며,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인구는 약 6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
- 특히, 공유경제 제공자가 약 6,000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, 이 중 전문사업자는 585만 명에 달함.

표 1. 중국 공유경제 현황과 전망

구 분	2016년 현재	전년대비	2020년 전망
거래총액	3조 4,520억 위안	103% 증가	GDP대비 10% 전망
자금조달 규모	1,710억 위안	130% 증가	-
참여인구	약 6억 명	약 1억 명 증가	-
공유경제 제공자	약 6,000만 명	약 1,000만 명 증가	약 1억 명 전망
전문사업자	약 585만 명	약 85만 명 증가	약 2,000만 명 전망

자료원: 国家信息中心分享经济研究中心(中国分享经济发展报告2017) 자료를 바탕으로 著者 재구성

2. 원인과 분석: 중국의 공유경제 현황

■ P2P자금대출 등 금융 분야의 공유경제 거래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, e-book, 음원 등 지식 콘텐츠 분야의 성장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남.

- 2016년 기준, 금융 분야의 공유경제 거래규모가 2조 이상으로 전체의 60% 이상을 차지함.
- 동기간, 지식 콘텐츠 분야의 거래규모는 61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05% 증가하는 등, 가장 빠르게 성장
- 반면, 생산설비 분야의 거래규모 증가속도는 전년대비 69%에 그치면서 가장 느리게 성장

표 2. 산업별 중국 공유경제 시장거래규모

(단위: 억 위안)			
구 분	2015년	2016년	증가율
금융 (P2P자금대출 등)	10,000 (58.9%)	20,863 (60.4%)	109%
생활서비스 (배달, 가사도우미)	3,603 (21.2%)	7,233 (21.0%)	101%
생산설비 (기계설비, 검사장비)	2,000 (11.8%)	3,380 (9.8%)	69%
교통 (차량, 자전거 등)	1,000 (5.9%)	2,038 (5.9%)	104%
지식 콘텐츠 (e-book, 음원 등)	200 (1.2%)	610 (1.8%)	205%
숙박 (숙박시설 등)	105 (0.6%)	243 (0.7%)	131%
의료 (건강검진 등)	70 (0.4%)	155 (0.4%)	121%
총	16,978 (100%)	34,522 (100%)	103%

자료원: 家信息中心分享经济研究中心(中国分享经济发展报告2017) 자료를 바탕으로 著者 재구성

*주: ()는 전체 대비 비중을 의미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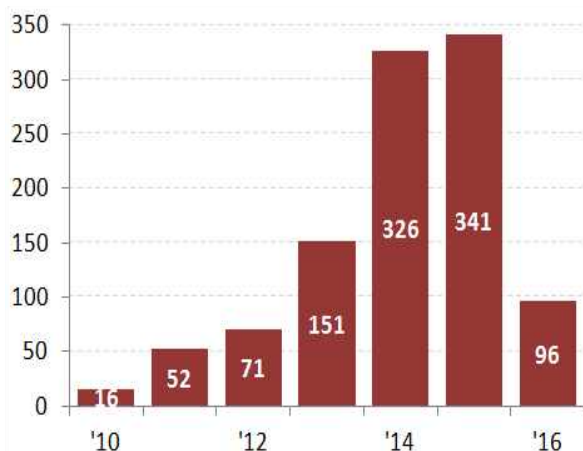
■ 중국 공유경제 신규창업은 2015~2015년 2년간 대거 나타났으며, 교육, 의료, 공간대여 등 분야의 신규창업이 많음.

- 지난해 중국의 공유경제 신규 창업 수는 96개이며, 지난 2014~2015년에 역대 가장 많은 326개, 341개 씩 신규 증가함.

- 2014년 신규창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산업은 교육(17.8%), 의료(16.5%), 교통(13.5%) 순으로 나타남.
- 2016년 현재, 신규창업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교육(17.2%), 의료(16.1%), 물류(10.8%) 등 순으로 나타남.
- 한편, 2015년부터 물류 분야의 창업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2016년 신규창업비중이 10.8%를 기록
- 또, 웨이신(微信, WeChat) 등을 이용한 공유경제인 위미디어(We Media) 분야의 신규창업 비중은 2014년 6.4%, 2015년 8.2%, 2016년 8.4%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임.

그림 1. 연도별 중국 공유경제 신규 창업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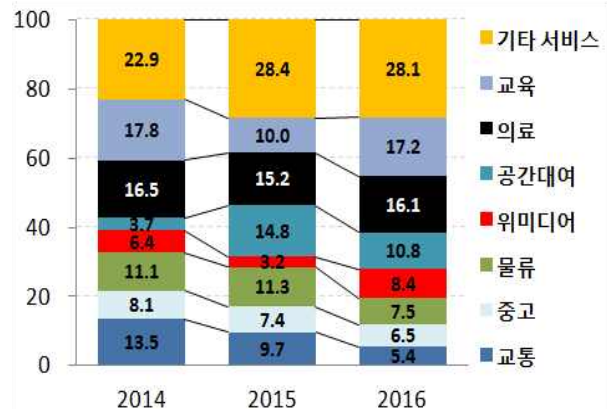
(단위: 개)



자료원: IT桔子, 腾讯研究院 자료로 著者 재구성
*주: P2P 대출업은 불포함

그림 2. 산업별 중국 공유경제 신규창업 비중

(단위: 비중, %)



자료원: IT桔子, 腾讯研究院 자료로 著者 재구성

*주 1): P2P 대출업은 불포함

주 2): 위미디어(We Media, 自媒体)란, 중국 웨이보(微博), 기타 SNS 등 경로를 통해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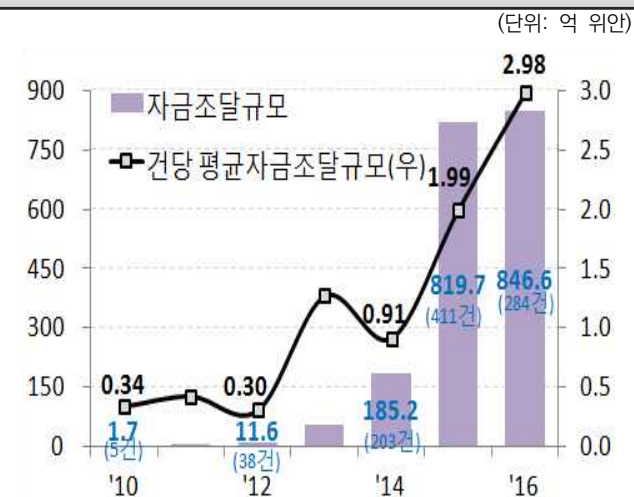
■ 중국 공유경제 기업들의 자금조달 규모가 최근 2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, 교통 분야 기업의 자금조달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.

- 최근 2년간 공유경제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건당 평균 자금조달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.
- 지난 2010년 중국 공유경제 기업의 자금조달은 총 5건 있었는데, 그 규모는 총 1.7억 위안으로, 건당 평균조달 규모는 0.34억 위안에 그침.
- 자금조달규모는 2014년부터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, 특히 2015~2016년 2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함.
- 2016년 공유경제 기업들의 자금조달은 총 284건으로 나타났으며, 자금조달 총규모는 846.6억 위안으로 건당 평균 2.98억 달러로 나타남.

□ 산업별로는, 교통, 위미디어 분야의 자금조달이 가장 많이 나타났음.

- 2014~2016년 사이 교통 분야의 자금조달 비중은 40.0%에서 63.1%로 매년 증가하여, 최근 3년간 중국의 공유경제 자금조달 비중이 가장 큰 산업으로 나타남.
- 동기간, 신규창업 비중이 가장 컸던 교육 분야의 자금조달 비중은 10.3%p 감소함.

그림 3. 중국 공유경제 자금조달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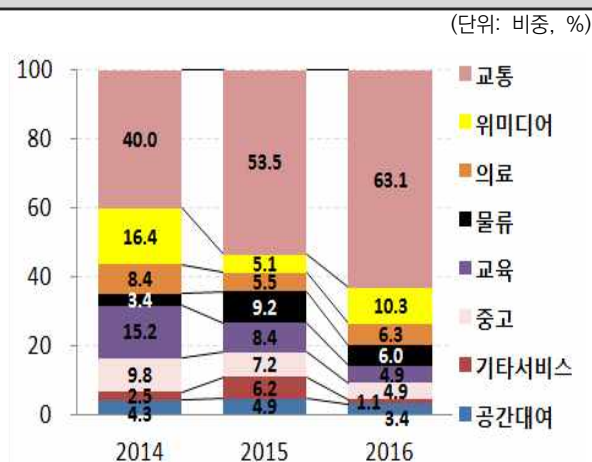


자료원: IT桔子, 腾讯研究院 자료로 著者 재구성

*주 1): P2P 대출업은 불포함

*주 2): ()는 연도별 자금조달 건수를 의미함.

그림 4. 산업별 중국 공유경제 자금조달 비중



자료원: IT桔子, 腾讯研究院 자료로 著者 재구성

*주 1): P2P 대출업은 불포함

*주 2): 위미디어(We Media, 自媒体)란, 중국 웨이보(微博), 기타 SNS 등 경로를 통해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함.

■ 중국의 공유경제 창업기업의 평균 존속기간은 29개월(2년 여)에 그쳤으며, 2016년 현재 기업가치 5억 달러 이상인 기업이 가장 많은 분야는 금융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.

□ 중국의 공유경제 창업기업의 평균 존속기간이 가장 긴 산업은 중고(36.3개월), 위미디어(35.8개월), 교육(33.0개월)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, 물류가 21.4개월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남.

□ 전체 산업의 평균 존속기간은 29.1개월로 나타났으며, 평균 기간보다 짧은 산업은 의료(28.8개월), 공간대여(23.8개월), 기타서비스(23.7개월), 물류(21.4개월) 등 4개 분야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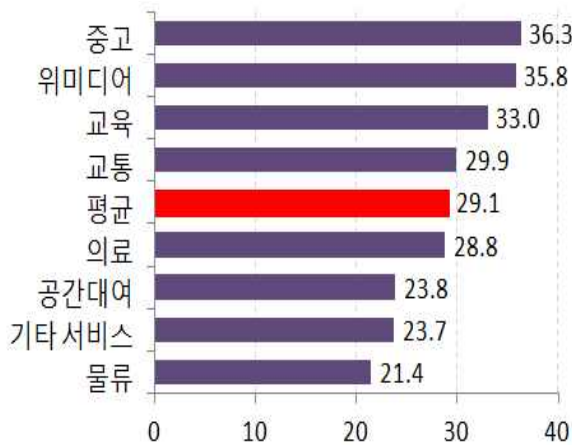
□ 2016년 현재, 기업가치 5억 달러 이상의 기업(유니콘, 준유니콘¹⁾)이 가장 많은 공유경제 산업은 금융(15개), 교육(10개), 위미디어(8개) 등으로 나타남.

□ 한편, 유니콘, 준유니콘 기업 중 평균기업가치가 가장 높은 분야는 교통 분야로, 1개 기업 당 평균 기업가치는 60.4억 달러에 달함.

1) 유니콘 : 기업가치가 10억 달러이상인 기업. 준유니콘 : 기업가치가 5억 달러이상인 기업

그림 5. 중국 공유경제 창업기업의 평균 존속기간

(단위: 개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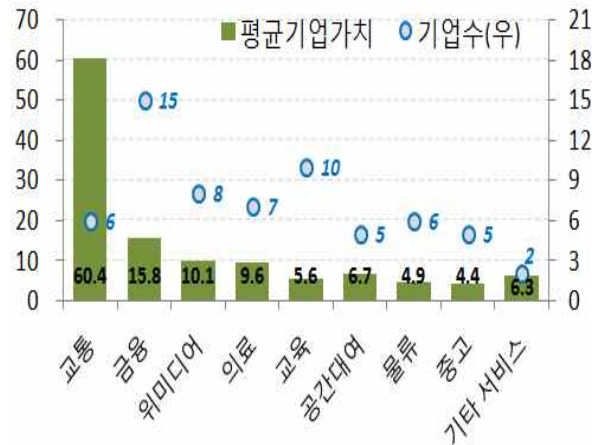
자료원: IT桔子, 腾讯研究院 자료로 著者 재구성

*주 1): P2P 대출업은 불포함

*주 2): 위미디어(We Media, 自媒体)란, 중국 웨이보(微博), 기타 SNS 등 경로를 통해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함.

그림 6. 기업가치 5억 달러 이상의 공유경제 기업현황(2016년)

(단위: 억 달러)




자료원: IT桔子, 腾讯研究院 자료로 著者 재구성

*주 1): P2P 대출업은 불포함

*주 2): 위미디어(We Media, 自媒体)란, 중국 웨이보(微博), 기타 SNS 등 경로를 통해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함.

3. 전망과 시사점

- 공유경제 시대에 대비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개선, 신규창업기업 지원 등 국내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통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꾀해야 함.

- 첫째, 우리나라도 공유경제 관련 법제도 인프라 구축, 중장기적인 공유기업 육성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신생 창업기업들의 보육 인프라도 필요한 상황
- 둘째, 공유경제의 활성화 기반은 디지털 기술인만큼, 공유경제 관련 어플, 결제서비스 등 IT기반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.
- 셋째, 신생 창업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해 '죽음의 계곡'을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, 제도권 대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도 있음. 

알립니다

- CSF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에서 발간하고 있으며, 저작권 정책은 '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'에 따릅니다.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·변경·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.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△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.
- 본 원고에 대한 글, 그림,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,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